

	靑於藍 국어 2015 국가직 9급 국어	 ☆☆☆☆ 송병렬 선생의 ☆☆☆☆ 아무진 국어단과 문학+비문학+지문독해 완전분석 목/금/토 15:30-16:30
---	--	--

아무진 국어 특강	목,금,토 15:30~18:30	누리마루국어 특강	시간표 참조
-----------	-------------------	-----------	--------

문 1. 어법에 맞게 쓰인 것은?

- ① 내일 야유회 간데요?
- ②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대.
- ③ 연예인을 보니 그렇게 좋던?
- ④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대요.

풀이 ③

‘던’은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이다. ‘-더냐’보다 더 친근하게 쓰는 말이다.

주의) • 대 : 인용의 의미로 ‘~다고 해’의 준말

• 데 : 과거 회상 또는 경험의 짐술로 ‘더라’의 준말

- ① 내일 야유회 간데요?: ‘-ㄴ다고 해’가 줄어든 말어므로 ‘간대요?’로 써야 한다.
- ② 그이가 말을 아주 잘하대.: 말을 ‘잘하더라’라는 의미이므로 ‘잘하데.’로 써야 한다.
- ④ 제가 직접 봤는데 너무 크대요.: ‘크더라’라는 의미이므로 ‘크대요’로 써야 한다.

문 2.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 ① 그 사고는 여러 가지 규칙을 도외시 하였기 때문이야.
- ② 사실상 여자 대 남자의 대리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 ③ 반드시 거기에 가겠다면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
- ④ 금연을 한 만큼 네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 지 궁금해.

풀이 ③

• ‘대로’가 체언 뒤에 붙으면 부사격 조사,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붙으면 의존명사이다.

그러므로 ‘내키는√대로’에서 대로는 관형사형 어미 뒤에 있어서 의존 명사이다. 따라서 맞는 표현이다.

- ① ‘도외시하다’는 ‘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하다.’의 의미로 도외시(명사)+ ‘하다’로 이루어진 파생동사이므로 붙여써야 한다.
- ② 밖에는 : ‘밖에’가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④ 회복될 지 궁금해.: ‘-ㄴ지’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의 뜻으로 어미이다. 따라서 붙여 써야 한다.

문 3.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 면적은 설계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② 제안서 및 과업 지시서는 참가 신청자에게 한하여 교부한다.
- ③ 관계 조서 사본을 관리 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인다.
- ④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평가는 1년 유예를 둔다.

풀이 ②

‘한하다’는 앞에 ‘~에’가 붙어 ‘어떤 조건, 범위에 제한되거나 국한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청자에 한하여’로 고쳐야 한다.

- ①번 ‘에서’는 근거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 ③의 ‘에’는 처소부사격조사에 해당한다.

④에서 ‘불구하다’는 ‘~에,~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으로 쓰여 ‘엮매여 거리까지 아니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문 4. 다음 글에서 경계하고자 하는 태도와 유사한 것은?

비판적 사고는 지엽적이고 시시콜콜한 문제를 트집잡아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중요한 대상으로 삼는다. 비판적 사고는 제기된 주장에 어떤 오류나 잘못이 있는가를 찾아내기 위해 지엽적인 사항을 확대하여 문제로 삼는 태도나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 ① 격물치지(格物致知) ② 본말전도(本末顛倒)
 ③ 유명무실(有名無實) ④ 돈오점수(頓悟漸修)

풀이 ②

제시문은 문제의 핵심이 아닌 지엽적사항을 문제 삼아 문제를 확대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본말전도(本末顛倒)’는 ‘사물의 이치가 뒤바뀐 것’이므로 제시문에 해당하는 한자어이다.

- ① 격물치지(格物致知): 실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함.
 ③ 유명무실(有名無實):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음.
 ④ 돈오점수(頓悟漸修): 문득 깨닫고 점진적으로 수행한다.

문 5. 다음을 논리적 순서로 배열한 것은?

ㄱ. 그 덕분에 인류의 문명은 발달될 수 있었다.
 ㄴ. 그 대신 사람들은 잠을 빼앗겼고 생물들은 생체 리듬을 잃었다.
 ㄷ. 인간은 오랜 세월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조건을 맞추어 왔다.
 ㄹ. 그러나 밤에도 빛을 이용해 보겠다는 욕구가 관솔불, 등잔불, 전등을 만들어 냈고, 이에 따라 밤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활동이 점점 많아졌다.

- ① ㄱ-ㄴ-ㄷ-ㄹ ② ㄴ-ㄱ-ㄷ-ㄹ
 ③ ㄷ-ㄹ-ㄱ-ㄴ ④ ㄹ-ㄷ-ㄴ-ㄱ

풀이 ③

제시문은 인간은 원래 습관과 달리 밤에 활동하면서 나타나는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접속어와 지시어를 고려하면 ㄹ의 ‘그러나’는 ㄱ에 대한 역접이며 ㄱ에서 ‘그 덕분에 인류의 문명은 발달될 수 있었다’고 했으므로 앞에 나올 내용은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이유나 조건이 나와야 하므로 ㄷ문단이 앞서야 한다.

문 6. 리더십 부재와 잘못된 정책을 ‘등산’에 빗대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말이 많으면 어느 산을 오를 것인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② 등산로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길잡이가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등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③ 길잡이가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혼자 가 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어 등산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④ 등산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봉우리에 올랐다는 기쁨 그 자체이므로 길잡이는 항상 등산하는 사람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풀이 ③

③에서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잘못된 정책) 혼자 가 버리면(→리더십 부재)’가 예시된 문장이다.

문 7.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사물놀이 연주자들은 흔히 쟁쟁거리는 팽과리를 천둥이나 번개에, 짚게 몰아가는 장구를 비에, 둥실대는 북을 구름에, 여운을 남기며 울리는 징을 바람에 비유한다. 천둥이나 번개, 비, 구름, 바람이 어우러지며 토해 내는 소리가 사물놀이 소리라는 것이다. 사물놀이는 앉아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와 서서 연주하는 사물놀이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는데, 전자를 ‘앉은반’, 후자를 ‘선반’이라고 한다.

- 101

②는 사물놀이의 소리는 둘째 문단에, ③은 첫 문단 첫 문장에 나타나 있고, ④는 마지막 문장에 나타나 있다.

공손하게 표현하고자 할 때도 간접 발화는 유용하다. 남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경우 직접 발화보다 청유형식이나 의문 형식의 간접 발화를 사용하면 공손함이 잘 드러나기도 한다.

- 이 ③

나는 집이 가난하여 말이 없어서 간혹 남의 말을 빌려 탄다. 노둔하고 여윈 말을 얻게 되면 일이 비록 급하더라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하고 조심조심 금방 넘어질 듯 여겨서 개울이나 구렁을 지날 때는 말에서 내려 걸어가므로 후회할 일이 적었다. 발굽이 높고 귀가 쫓긋하여 날래고 빠른 말을 얻게 되면 의기양양 마음대로 채찍질하고 고삐를 늦추어 달리니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여 매우 장쾌하지만 말에서 위험하게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할 때가 있었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

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의 소용에 쓰는 것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야 어떻겠는가?

- 이곡, '차마설(借馬說)' -

- ① 경험을 통한 통찰력이 돋보인다.
- ② 우의적 기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 ③ 대상들 사이의 유사점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일상사와 관련지어 글쓴이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고 있다.

풀이 ③

제시문은 사실 - 의견의 2단 구성 방식을 취하고, 권위있는 사람의 말을 논거로 사용하고, 유추의 방식을 통해 개인적 체험을 보편적인 것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②의 우의적 기법은 돌려 말하는 것이고 우화적 기법은 동물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것이다.

③은 '비교'를 말하고 있다.

작품연구 이곡, '차마설(借馬說)'

- 연대: 고려시대
- 형식: 수필, 설
- 성격: 교훈적, 철학적, 체험적, 우의적
- 문체: 역어체, 만연체
- 제재: 차마 즉 말을 빌린 경험
- 주제: ㉠ 모든 소유는 빌린 것에 불과하니 사람은 겸허하게 살아야 한다.
 ㉡ 소유에 근거한 인간 심리의 허망함,
 ㉢ 소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
- 구성: 2 단구성(사실(경험)의 제시와 의견의 개진) = 주관적인 사실(경험) - 보편적인 의견

문 10. 다음 글과 같은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은?

진리가 사상의 체계에 있어 제일의 덕이듯이 정의는 사회적 제도에 있어 제일의 덕이다. 하나의 이론은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간명한 것이라 하더라도 만약 참되지 않다면 거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는 그것이 아무리 효율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의롭지 않다면 개혁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 ① 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여자는 생각하는 것이 남자와 다른 데가 있다. 남자는 미래를 생각하지만 여자는 현재의 상태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남자가 모험, 사업, 성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여자는 가정, 사랑, 안정성에 비중을 두어 생각한다.
- ③ 우리 강아지는 배를 문질러 주면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 버려. 그리고 정말 기분 좋은 듯한 표정을 짓지. 그런데 내 친구 강아지도 그렇더라고. 아마 모든 강아지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 ④ 인생은 여행과 같다. 간혹 험난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예상치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한다.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도 한다.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생을 끝내고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더없이 편안해질 것이다.

풀이 ④

제시문은 진리와 정의의 유사점에 주목하여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유비추리에 의해 전개되고 있으므로 유비추리를 찾으면 된다. ④에서 인생과 여행의 유사성을 찾아 진술하고 있으므로 유추에 해당한다.

- ①은 연역 추리 중 가언적 3단논법에 해당한다.
 ②는 두 대상 사이의 차이점을 진술하는 '대조'의 기법이다.
 ③은 귀납추론의 한계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글이다.

문 11. 밑줄 친 부분이 맞춤법에 맞지 않는 것은?

- ① 하나에 백 원씩 쳐주마. ② 여름이 되니 몸이 축축 쳐지네.
 ③ 아궁이에서 쓰레기를 쳐대고 있지. ④ 오는 길에 쳐박힌 자전거를 보았어.

풀이 ①

- '쳐'는 '치어'의 준말이며 '치다(셈을 맞추다.)+어 주다> '쳐주다'로 써야 한다.
- '쳐'는 '마구', '함부로' '많이'의 의미이다.
- ② 쳐지다 : 위에서 아래로 축 늘어지다.
- ③ 쳐대다 : 빨래, 반죽 따위를 무엇에 대고 자꾸 문지르다.
- ④ 쳐박히다 : '쳐박다'의 피동.

문 12. 밑줄 친 부분 중 보조 용언이 결합되지 않은 것은?

- ① 창문 너머로 날이 밝아 온다.
 ② 동생이 내 과자를 먹어 버렸다.
 ③ 우체국에 들러 선배의 편지를 부쳐 주었다.
 ④ 그는 환갑이 지났지만 40대처럼 젊어 보인다.

풀이 ④

- ④에서 '보인다'는 눈으로 '보다'의 의미가 살아 있는 본용언이다. 본용언 '젊어'를 빼도 '40대처럼 보인다.'가 말이 되기 때문이다.
- ① 주로 동사 뒤에서 '-어 오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기준점으로 가까워지면서 계속 진행됨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
 ②는 보조동사로 동사 뒤에서 '-어 버리다'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말.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었음을 나타낼 때 쓴다.
 ③ 동사 뒤에서 '-어 주다' 구성으로 쓰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함을 나타내는 보조동사

문 13. 밑줄 친 부분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세 시간이 흐르도록 분분했던 의견들이 마침내 하나로 합치하였다.
 ② 아무리 논리적 사고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비판이 따르게 마련이다.
 ③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여주는 겸손은 가끔 오만으로 비칠 수도 있다.
 ④ 결미에 제시된 결론이 모두에서 진술한 내용과 관련을 맺는다면 좀 더 긴밀한 구성이 될 것이다.

풀이 ②

의미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사고'는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비판적 사고, 진보적 사고, 합리적 사고 등 하위어가 올 수 있으므로 사고와 비판은 상하 관계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반의 관계'이다.

- ① 분분(紛紛) : 소문, 의견 따위가 많아 갈피를 잡을 수 없다.
 합치(合致) : 의견이나 주장 따위가 서로 맞아 일치함.
 ③ 겸손(謙遜/謙巽) :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오만(傲慢) :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 또는 그 태도나 행동.
 ④ 결미(結尾) : 글이나 문서 따위의 끝 부분이나 결말.
 모두(冒頭) : 말이나 글의 첫머리.

문 14. 밑줄 친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결단력이 없어 좌고우면(左顧右盼)하다가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쳐 버렸다.
- ② 다수의 기업이 새로운 투자보다 변화에 대한 암중모색(暗中摸索)을 시도하고 있다.
- ③ 그 친구는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 ④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한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나 마찬가지이다.

풀이 ④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④에 적당하지 않다.

④에는 어변성룡(魚變成龍 ; 물고기가 변하여 용(龍)이 된다는 말.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과 상통하는 말)정도가 적당하다.

- ① 좌고우면(左顧右盼):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
- ② 암중모색(暗中摸索): 은밀한 가운데 일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아내려 함.
- ③ 침소봉대(針小棒大):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림.

문 1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동(三冬)에 ㉠베옷 입고 암혈(巖穴)에 ㉡눈비 맞아
구름 낀 벌늪도 켜 적이 없건마는
㉢서산에 해 지다 하니 ㉣눈물겨워 하노라.

- ① ㉠ : 화자의 처지나 생활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 ② ㉡ : 화자와 중심 대상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 ③ ㉢ : 화자가 머물고 있는 공간과 구별되는 공간이다.
- ④ ㉣ :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직접 표출되고 있다.

풀이 ②

작자는 여러 차례 벼슬을 사양하여, 두류산(지리산)에 들어가 학문에만 전념하던 중에, 종종 임금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조를 지었다.

작자는 산중에 들어가 청빈낙도의 생활을 즐기면서 벼슬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구름 낀 벗 뉘' 즉 임금의 작은 은혜조차 받은 적이 없지만, 임금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니 슬픔을 감출 수가 없다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초장의 '베옷'은 벼슬을 하지 않은 선비 자신을 나타내고, 종장의 '해지다'는 임금의 승하를 은유적으로 비유한 것이다. 임금이 세상을 떠나니 그 애처로운 마음을 신하의 충의심으로 담아내고 있다

‘눈비’는 화자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화자와 중심 대상 사이를 연결한다는 설명을 맞지 않다.

문 16. ()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개살구’, ‘잠’, ‘새파랗다’ 등은 어휘 형태소인 ‘살구’, ‘자-’, ‘파랗-’에 ‘개-’, ‘-ㅁ’, ‘새-’와 같은 접사가 덧붙어서 파생된 단어들이다. 이처럼 직접 구성 요소 중 접사가 확인되는 단어들을 ‘파생어’라고 한다. 반면, () 등은 각각 실질적 의미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인데, 이를 ‘파생어’와 구분하여 ‘합성어’라고 한다.

- ① 고추장, 놀이터, 손짓, 장군감 ② 면도칼, 서릿발, 쉼등이, 장난기
- ③ 깎두기, 선생님, 작은형, 핫바지 ④ 김치찌개, 둘다리, 시나브로, 암탉

풀이 ①

①은 모두 ‘명사+명사’의 합성어로 합성어에 해당한다.

② ‘쉼+등이(접사), 장난+기(氣:접사)’로 파생어이다. ‘서릿발, 면도칼’은 합성어이다.

→ '서릿발'을 파생어로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발'은 '기세, 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보는 경우이다

③ 깍두+기(접사), 선생+님(접사), 핫(접사)+바지

'작은형]에서 '작은'을 접사로 보는 관점도 있다. 이 경우 파생어로 볼 수 있다.

④에서모두 합성어나 '시나브로'는 단일어이다.

문 17. 다음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인문학은 세상에 대한 종합적이고 비판적인 해석과 시각을 제공한다. 인문학이 해석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현대 사회는 사회의 복잡성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함에 따라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졌으며,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이 정보와 지식의 생산, 유통, 소비를 혁신적으로 바꾸면서 사람들 사이의 새로운 상호 의존 관계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가 불확실하고 복잡하며 매일 매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 나아가 지구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타인과의 상호 관계가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인문학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 ① 현대 사회에서 인문학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하고 있어.
- ②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 ③ 과거와 현대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 현대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어.
- ④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타인과의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는 점을 현대 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말하고 있어.

풀이 ①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인문학은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다.

② 현상을 분석하기는 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과거 사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지는 않다.

④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해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타인과의 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는 진술은 없다.

문 18.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쓰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위:%, 중복 응답)

인 터 넷 의 순기능	88.4	59.0	46.6	13.1	12.9
	다양한 정보의 습득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온라인 교육 및 여가 활용	다양한 의견의 장	다양한 동호회 참여 및 활동
인 터 넷 의 역기능	84.3	83.9	56.2	16.1	10.2
	욕설,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성인 음란물 유통	개인 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반국가 행위

- ① 인터넷을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음을 서술한다.
- ②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 ③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인터넷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④ 인터넷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장한다.

풀이 ④

인터넷 사용에 대한 순기능(긍정적 기능)도 자료에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을 금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문 19.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이용악은 1945년 해방이 되자 고향인 함경북도 경성에 가족을 두고 홀로 상경한다. ‘그리움’은 몹시 추웠던 그해 겨울밤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쓴 시이다.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함박눈 쏟아져 내리는가.

송
병
렬

- 이용악, ‘그리움’ -

- ① ㉠은 자신이 떠난 공간인 고향을 가리키는 것이겠군.
② ㉡은 고향에 남겨 두고 온 가족을 의미하는 표현이겠군.
③ ㉢은 극심한 추위 속에서도 가족을 떠올리는 시간이겠군.
④ ㉣은 그리운 이를 볼 수 없는 화자의 절망적 심정을 투영한 대상물이겠군.

풀이 ④

이 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으로 해방 직후에 지은이가 혼자 상경하여 서울에서 외롭게 생활하다가 함경북도 무산의 처가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고, 전부 5언으로 이루어졌지만, 의미상으로는 기·승·전·결의 전형적 형식에 수미상관(首尾相關)의 구조를 결들인 작품이다.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볼 수 없는 절망적 심정을 투영한 대상은 아니다.

작품연구 **이용악, ‘그리움’**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율격 : 내재율
- 성격 : 독백적, 연가풍, 애수적
- 표현 : 수미상관(首尾相關)의 구조
- 체재 : 고향 작은 마을과 그 가족들, 함박눈
- 주제 :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북쪽에 두고 온 가족을 향한 그리움
- 특징 : 시인의 전기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창작됨,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그리움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문 20. 다음 글에 나타난 ‘그림:액자’의 관계와 가장 비슷한 것은?

2000년이 된 기념으로 ○○화랑에서 화가 200인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큐레이터가 보내 준 카탈로그를 보고 전화로 김○○ 화백의 그림을 바로 예약했다. 큐레이터는 “작품이 작는데 병 속에 세 명이 들어가 있어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나는 내가 설정한 ‘가족’이라는 주제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구입하기로 하였다.

전시회가 끝난 뒤 작품을 받아 보니 액자가 그림보다 훨씬 컸다. 이렇게 액자가 크니, 큐레이터의 걱정과는 달리 그림이 답답해 보이지는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액자의 힘’이다. 내가 아는 어떤 애호가는 좋은 액자를 꾸준히 모은다. 갖고 있는 그림의 액자를 바꾸기 위해.

- ① 유명 인사들의 사회적 성공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그들은 그 요인으로 하나같이 좋은 습관을 든다.－ ‘성공:습관’
- ② 나는 가끔 책을 장난감 블록처럼 다양하게 쌓아 본다. 책의 무거움, 진부함, 지루함을 해소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책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책:장난감 블록’
- ③ 로댕은 돌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서 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움직여 돌 속의 손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실패하지요.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로댕은 다시 새 돌을 꺼내 바라봅니다.－ ‘돌:손’
- ④ 인간은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한다고 한다. 몇 초 만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내면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옷차림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내면:옷차림’

풀이 ④

제시문에서는 액자가 그림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내면을 돋보이게 하는 옷차림과 관계가 비슷하다.